

새 희망을 품고

재도약하는 양돈산업이 되자



김 동 환 회장
(사)대한양돈협회

존경하는 전국의 양돈농가 여러분!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 황금돼지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2008년 무자년(戊子年) 쥐띠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양돈업계 뿐만 아니라 축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던 실로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양돈산업도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던 다난(多難)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늘 항시 반복되는 일과가 어제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매년 되풀이 되는 일상이지만 지난 한해는 이런 평범한 일상마저 꿈꾸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을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한·미 FTA체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이어 한·EU FTA추진 등 거센 수입개방 압력을 경험했으며, 양돈 현장에서는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폐사 피해와 함께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 폭등은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져 양돈농가들이 깊은 속앓이를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더구나 사상 유래 없는 돈육의 수입증가로 지난해에는 24만여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범람하는 수입 축산물은 우리 유통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한 돈가의 하락은 양돈농가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 같은 소식은 우리 양돈협회와 양돈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부, 관련단체 및 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국회

새 희망을 품고 재도약하는 양돈산업이 되자

를 통과해 올해 말이면 실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양돈협회는 이와 함께 양돈 자조금사업을 통해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수입 축산물의 불법 유통과 둔갑판매를 개선하고 국산 돼지고기의 유통 및 판매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산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FTA 개방화 시대에 산업보존을 위해 생산안정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 회복 없이는 양돈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돈열 청정화 및 PRRS안정화를 통해 소모성질환 극복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나아가 돼지고기 수출 돌파구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가축분뇨 자원화 정착을 통해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친애하는 양돈농가 여러분!

양돈선진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역시 불과 10여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PTC+등 양돈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양돈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함으로써 현재의 양돈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라는 말처럼 다시 문제점을 놓고 하나씩 해결책을 모색하며 변화함으로써 현재의 양돈강국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새 희망을 품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좌절과 체념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문제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양돈인들의 단합된 힘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양돈협회는 양돈인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양돈농가 여러분도 국내 양돈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올 한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양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이를 위해 전국의 양돈인은 물론 양돈업계, 학계,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고, 늘 건강한 몸으로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돈**